

# 다 같은 약이 아니다 고지혈증 약 복용시간 지키세요!

고지혈증은 뇌졸중,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이다. 당뇨병이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 관상동맥심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4배까지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높다.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혈당조절과 함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고지혈증은 핏속에 지방질의 농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가 일정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혈액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한다. 약물치료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목표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 때 시작한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려면 약물에 따른

복용시간과 유의사항을 잘 준수해야 한다.

## 약제 따라 복용시간 달라

HMG-Co A 환원효소 억제제 혹은 저해제(스타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로 간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80%까지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최근에는 당뇨병환자의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약물은 아침에 복용하는 것보다 저녁이나 취침 전에 복용해야 한다.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심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제제는 저녁 시간에 복용한다. 반면 아토르바스타

틴, 로수바스타틴제제, 심바스타틴 서방정은 식사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정제나 캡슐 자체를 그대로 삼켜서 복용한다.

이 계열의 약물은 자몽주스와 복용해선 안 되고,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피브레이트류, 니아신 등)나 항진균제(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등)와 함께 복용할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스타틴 계열의 약물〉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피브린산 유도체(피브레이트) 계열의 약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중성지방의 혈중농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복용시간이 달라진다. 페노피브레이트의 경우 흡수를 높이기 위해 식후에 즉시 복용하고, 겐피브로질은 식전 30분, 베자피브레이트와 에토피브레이트도 식후에 복용한다.

스타틴 계열의 약제 및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화제,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와 함께 먹을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 후 복용한다.

#### 〈피브레이트 계열의 약물〉

페노피브레이트(-프로세토펴), 겐피브로질, 베자피브레이트, 에토피브레이트

니코틴산 유도체는 지방조직의 분해를 방해하고,



LDL-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아포B단백질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해 혈중 지질치를 개선해주는 약물이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위궤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고, 복용 후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마실 경우 혈관 확장에 의해 홍조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니코틴산 유도체〉

니아신, 아시피목스

프로부콜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방귀, 복통 등 위장관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사와 같이 혹은 직후에 복용한다. 복용 후 심장이 빠르거나 늦게 뛰는 부정맥 증상을 보이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콜레스티라민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으로 알갱이로 된 가루형태의 약이다. 물과 복용하는 일반 약물과 달리 오렌지 또는 사과주스(탄산음료 외)에 혼합해서 복용한다. 모래알이나 덩어리 같은 질감을 줄이고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빨대를 사용하여 먹는 것이 좋으며, 수분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변비, 방귀, 더부룩함, 메스꺼움 등 위장 관계 약물 유해반응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약물의 양을 줄이면 관 찰아진다.

고지혈증 약은 종류가 다양하고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성분명, 상품명)과 복용법, 부작용 등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 ✎

글/ 김민경 기자